

## 예배당이 성전인가?

이 정 엽  
(뉴비전교회 목사)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애용하며 사용하고 있다. “성전 건축”이니, “새 성전 구입”이니, “성전 입당” 등등.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성전을 떠나가기 전”이라는 가사가 있다. 이 모든 말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 바로 예배당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끌어온 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의 예배당이 구약적 의미의 성전인가?

한편 우리는 “교회”라는 말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회”란 일차적으로 세상에서 부름 받은 무리,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들이 모인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 가자”라는 말은 그릇된 표현이다.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여야 옳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고 일차적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배워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말이 되어서 새삼스럽게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는 표현을 기필코 사용하여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 표현이 가져온 결과는 지대하였고 바른 교회관을 갖는데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된 것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예를 들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들이 모이는 외적인 건물과 장소만을 중요시 여기고 치장하며 투자해 온 것이 아닌가? 어떤 신자는 예배드리는 건물이 소위 말하는 시설들을 갖춘 예배당 같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릴 맛이 안 난다고 한다. 분위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인간이기는 하지마는 과연 웅장하고 엄숙하고 숙연케 하는 내부의 실내 장식들을 갖춘 건물에서 예배 드린 것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일까? 가정에서, 천막에서, 창고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느낌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알게 되어서 비롯된 결과들이다.

어차피 인간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하여 사상이 굳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거친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심사와 행동도 거칠어지기가 십상인 것이다. 하물며 바른 성경적 개념이 아닌 잘못된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빚어지는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현재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며 이미 과거에

지나가고 폐하여진 옛 것을 다시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유익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슯한 폐단과 부패와 비성경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행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의 예배당이 구약적 의미의 성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는 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지 그 이유를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소개된 슯데반 집사의 변론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성전의 성경적인 의미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발전사적,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1. 슯데반 집사의 변론 (사도행전 7장)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구약의 성전 개념을 그대로 오늘날 예배당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구약에서 신약의 교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었던 초대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전관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그들의 전철을 알게 모르게 답습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 교정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스데반이 잡혀 공회로 끌려온 이유 중의 하나는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이었다(행 6:13).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요, 그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슯데반 집사는 구약의 역사를 들어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였음을 밝혀줌으로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 특히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변증하였다.

첫 번째 증거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고 있다. 먼저 슯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것은 하란에서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창 11:31-12:5), 하란에 있기 전, 본토 메소보다미아 갈데아 우르에서 되어진 일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행 7:1-4). 즉,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 갈데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수 24:2-3)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성지로 알고 그 곳에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이방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인데, 9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던 곳이 이방 나라 애굽이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유대인의 선망의 대상인 모세를 든다. 그 역시도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29절),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음을 말하고 있다. 역시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 성전이 아닌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33절)고 말씀하셨다.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다. 신을 벗는 것은 종의 신분임을 고백하는 표시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단지 그 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종임을 나타내는 자세이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종종 한국에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사님들이 신발을 벗는 것은 이것을 본 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굳이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면 맨발로 서실 것이지 왜 슬리퍼를 다시 신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몸의 지체 가운데 발을 괄시하는 한국적 풍습에서 비롯된 것인가? 구두보다는 슬리퍼가 더 깨끗하다는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어쨌든 일관성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제 아무리 호화찬란한 예배당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초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 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곳(일차적으로 모인 무리들을 가리킴)이야말로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광야 교회”(38절)로 표현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사죄의 은총과 그 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단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런 저들을 실제로 왕이 되셔서 다스렸으니 참된 의미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스데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의 여정(광야교회)을 통하여 그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상기토록 하였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대신에 오히려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하늘의 군대, 신 레판의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다(42-43절). 그만큼 저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인도하심과 그 큰 기적과 권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데 빨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수없이 희생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42절)고 반문하신 것이다.

만약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건축헌금을 바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42절)는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지경에 이르면 얼마나 원통하고 헛된 수고를 한 것인가?

이어서 스테반 집사의 변론은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성전에 대한 설명으로 절정을 이룬다. 이것은 자기를 결박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항의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46절)고 요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47절)고 말한다. 먼저 46절 말씀 중,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거하실 처소”이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다윗이 요청한 것이고, 솔로몬 때 비로소 “그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다

이 성전이 오늘의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만, 현당 예배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본문들은 대부분 구약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만약 그것을 인용한다면 교회당(예배당)을 결단코 하나님께 잘 보여 복 받기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사람이 비좁아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개가 거액의 돈을 기부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가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이름을 내기 위하여 예배당을 짓는 일이 있다면 그런 목적과 이유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신축하는 이유와 목적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외에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

리는 그 분의 통치와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손으로 짓는 집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고, 성전이라는 건물 혹은 예배당이라는 집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토록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거하게 할 수 있겠느냐'(삼하 7:1-2)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건축하도록 요청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왕상 8:18) 축복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삼하 7:8-17), 하나님은 자기의 처소를 인간의 손에 넘겨주거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임재하시며 친히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된 분이 아니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열왕기상 8:27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라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이사야 66:1,2절과 시편 102:25절 말씀을 인용하여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행 7:48-50)고 하였던 것이다.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55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56절)고 외치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57-58절) 돌로 쳐죽였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광야교회에서만 나타나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론하는 바로 스데반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은 건물, 빈 걸 껌데기만 붙들고서 그 곳에서만 하나님과 만나며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스데반의 그 말에 마음이 찔렸지만 분노하면서 살인을 감행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진리를 외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다.

스데반이 외친 진리, 건물이 성전이 아니며,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느냐가 중요하며, 그것이 참 성전의 의미이다는 진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르쳐지고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오늘 다시 스테반이 외칠 때 우리 가운데 돌을 던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종종 어린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가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날벼락을 맞는가? 주일 학교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대부분 겪는 경험이다. 그러나 그것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꾸지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강대상에서 성극이나 성가 발표 등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마음 아파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하고 아무렇게나 마구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결국에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는 신자들을 낳게 되고, 기왕이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이 생각하는 전도사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와 교회당 밖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 생활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단순히 “건축 헌금”이라 하지 않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 하면 더 많은 헌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2. 계시 발전사적(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본 성전의 의미

그렇다면 바른 성전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 발전사적 관점에서 그 개념과 실상을 찾을 수가 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성전, 거룩한 곳(처소)은 특정한 장소가 본래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이는 형태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막이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해야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막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정착된 성막으로서 성전이 들어선 게 된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발전된 모습을 띤 것이지만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근본적인 원리는 같았다.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모든 희생 제사 제도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표이었고 그림자이었던 것이다(히 9, 10장).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내다보는 실물 교훈들이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그 모든 예표와 그림자의 성취자요 실체로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게 된 것이다. 40여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보시고 예수께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막 13:2)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21)고 토를 달았다.

우리는 여기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성전이었던 시대가 종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이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고 말씀하셨다.

즉, 장소적인 개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아닌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깨달거나 누릴 수 없는 시대와 수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를 통하여 교훈 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도록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히 10:19-22). 마태복음 1:23-24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14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더라”고 하였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라는 의미이다. 바로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낸 말이라 할 수 있다.

또 믿는 성도 가운데 역사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도 자신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며 교통하시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속받은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이다.

새 언약 아래 새 성전을 이룬 성도는 옛 언약처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안치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심으로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히 8:10; 참고 고후 3:3, 6)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성도 개개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개인주의로 치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 각 개인만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성전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고전 3:9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는 말씀이나, 같은 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참된 의미에서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분만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골 2:9)이시기 때문이요, 오직 그 분만이 온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21)라고 밝힌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22에서 더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따라서 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이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성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산 돌”이라고 불렀다(벧전 2:5).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향하여 “그의(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1-22)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각자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충만한 영광 가운데 맞이하며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하는 종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며 교통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우리가 100% 완전히 그것을 누리는 온전한 성전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온전하고 완성된 의미의 성전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계 21:22이하).

따라서 이것을 위하여 성도는 개인적인 성숙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숙과 서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미와 더불어 교회론적인 의미도 찾게 되는 것이다. 성도 각자를 성전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부인하고 무교회주의 혹은 개인주의로 그를 위험성을 경고하며 막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실체가 하나님의 계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다. 아울러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인 의미도 담고 있음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결국 오늘날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한 처사인지를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호칭을 써서 교회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마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냥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예배당”이나 “성전”이라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며 거기에 부합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더 비중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칭만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된다.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지어져 가야 할 산 돌들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바로 잡아주며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